



Merry Christmas!!

2023 년 연말과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성탄은 어려서부터 항상 즐거운 계절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난민 영어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Cherry 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영어 교실에서 자신의 클래스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일찍 갔는데, Cherry 와 4 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학생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의 영어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빙고 게임도하고, 미국의 중요한 명절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설명하며 성탄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클래스에는 아프간 학생들이 많아서 저는 다리어로 통역을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의 별의 인도를 받아 페르시아의 동방박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으며, 천사들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 일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으면 구원과 평강과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들은 무슬림 학생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미국에 왔고, 우리는 미국의 문화를 너희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어진다고 설명을 마치고,

준비해온 초콜릿과 케익을 나누며 아름답게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 학생 중 F 형제가 내게 와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집을 방문했고, 이번주 목요일부터 컴퓨터를 가르쳐 주기로 하였습니다.

F 는 결혼한지 8 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고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나는 그 부인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하는 동안 아민, 아민(Amen)으로 화답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마치며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ㅎㅎㅎ

또 오늘 영어 학교에 F 자매가 두 아이를 데리고 어느 선생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그 자매를 따뜻한 Hug 를

해주자 갑자기 자매가 울기 시작했고, 나는 그 자매를 데리고 나가서

위로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주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데 미국에 온지 1 년

반이 되었지만 너무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안아주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그 가정에도 방문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이사간 집도 방문해서 어려움을 돕고 좋은 관계를 이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난민 사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난민 사역의 키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댈러스의 있는 아프간 교회와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는 San Antonio 와 Houston 의 아프간 난민 사역을 돕는

교회와 아프간 교회 그리고 아프간 가정들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 주님의 은혜로 미전역의 여러 교회들과 Networking 이 되면서 미 전역과 유럽으로 협력하며 난민사역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축복기도**

-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도록
- Emad 형제 초청 케이스 과정을 활짝 열어 주시도록
- Fort Worth 의 부흥과 아프간 교회 개척을 위하여
-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